

1 본회소식



여명학교 간담회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6월9일 본회가 후원해온 여명학교를 방문해 간

담회를 갖고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했다. 간담회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황현수 상임부회장, 민수정 사무국장, 최현주, 장주연 간사가 자리했으며, 여명학교에서는 조명숙 교장을 비롯해 황희건 교감, 김신동 교무부장 김세순 간사가 참석했다. 본회 권회장은 먼저 올해 3월에 취임한 조명숙 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학교이전문제와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본회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한 벽화교육지원의 성과와, 올해 새롭게 진행될 그림책 만들기 교육지원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지난 12월 여명학교 후원을 위해 개최한 서울미술나눔 자선전시의 결과를 공유하고, 자선전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전달했다(위사진). 한편 지난 2015년부터 본회가 후원해 온 서울 남산에 위치한 여명학교는 1990년대 후반 탈북자를 보호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해 2004년 설립한 대안학교로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 2012년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해 9년간 여명학교를 이끌었던 이흥훈 교장은 지난 2월 정년퇴임하고 제3대 교장으로 조명숙 교장이 취임했다.



집행부 선임장 수여 및 상견례

본회는 지난 5월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권영걸 회장 집무실에서 본 회 제23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선임장 수여식 및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임 임원 및 사무국 최소 인원만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걸 회장은 신임 김종선(74회화) 감사, 이민주(76회화) 김홍규(83응미) 상임부회장, 민수정(82회화) 사무국장에게 선임장을 전달하고 2년의 임기 동안 봉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할 여러가지 사업들과 이에 따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아래사진=선임장을 받은 신임 임원들 / 왼쪽부터 김종선 감사, 이민주 상임부회장, 김홍규 상임부회장, 민수정 사무국장)



제23대 임원명단

고분

강태성(49조) 김 태(51회) 이인실(52회) 정상화(53회) 최익순(53조) 최종태(54조) 송영방(55회) 강은엽(56조) 김봉태(56회) 김종학(56회) 김형대(56회) 윤명로(56회) 이우환(56회) 강찬균(57응) 부수언(57응) 이봉열(57회) 최병상(57조) 김신현(58회) 백현옥(58회) 성기점(58회) 염태정(58조) 유영준(58조) 유희영(58회) 한영옥(58회) 이원복(59미) 임승자(59조) 김경인(60회) 심정수(60조) 심문섭(61조) 이강소(61조) 전 준(61조) 정승섭(61회) 손문자(62응) 송광자(62응) 이양원(62조) 정옥란(62응) 김소선(63조) 노명자(63응) 홍라희(63응) 김춘옥(64회) 신광석(64응) 김승희(65응) 박충흥(65조) 이용준(65조) 한운성(65회) 홍정희(65회) 차명희(66회) 최명룡(66조) 최인수(66조) 함인화(66조) 강희덕(67조) 장호익(67응) 오용길(68회) 윤호준(68응) 장수홍(69응) 이순중(70응) 김병중(74응) 이용덕(77조) 문 주(79조)

상임고분

김성희(82회)

명예회장

이신자(50응) 유인수(66회)

회장

권영걸(69응)

감사

이중복(62응) 김종선(74회)

상임부회장

황현수(74조) 이민주(76회) 김홍규(83응)

부회장

김지명(69회) 장혜용(69회) 황숙현(69응) 박항울(70회) 하수경(70회) 김천일(71회) 김혜원(71응) 나성숙(71응) 서명덕(71회) 강인선(73회) 양승희(73회) 임철순(74회) 조은영(74회) 이선원(75회) 안말환(76회) 조덕현(76회) 김춘수(77회) 김순애(78응) 변영혜(78회) 안기순(78회) 최미경(78응) 홍승혜(78회) 류길향(79회) 송대홍(79응) 임영선(79조) 김황록(80조) 안필연(80조) 김혜림(81회) 허 진(81응) 권인옥(82응) 김성천(82응) 김창수(82응) 채혜선(82응) 김선학(83응) 신지희(83산) 이진민(83사) 최진희(83회) 광병두(84산) 김미연(84공) 이원주(85조)

김태곤(86조) 김일호(88응) 윤진하(89조) 권대훈(90조) 이 혁(90조) 선우항(91사)

이사

김광숙(69회) 김진경(70응) 유형택(70조) 윤정섭(70조) 차임선(70응) 최미영(70응) 최명애(70회) 추명희(70조) 이정연(71응) 곡순화(72응) 고영란(73응) 박소영(73회) 안규철(73조) 이애자(73응) 박혜령(74회) 배창숙(74응) 신현경(74회) 이옥수(74응) 전민수(74조) 장문걸(76회) 여정화(77응) 정상근(79응) 김유주(80응) 이지희(80회) 조정란(80응) 김은정(81회) 박덕실(81회) 서효숙(81회) 김성애(82응) 김성희(82조) 송인옥(82회) 유병익(82회) 유혜란(82회) 이종숙(82회) 임수진(82회) 하귀분(82회) 신하순(83응) 이상길(83조) 강재희(84응) 이경석(84산) 최영민(85공) 송근영(86응) 양세혁(89조) 한정혜(89조) 권동현(90조) 장준혁(90조)

사무국장

민수정(82회)

간사

한현정(08응) 최현주(12응) 장주연(12응)



제18회 남가주동문전 개최

제18회 서울대미대 남가주동창회전이 지난 5월29일까지 LA한인타운 인근 S-갤러리(대표 한귀희)에서 열렸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문 작가들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한 최신작들을 선보이는 남가주동창회전은 지난 8일 오프닝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회장 한석란)가 주최한 이번 전시에서는 총 22명의 동문 작가들이 100여점의 많은 작품들을 출품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참여작가는 강영일, 김경애, 김경옥, 김구자, 노성인,

박다애, 박영규, 백혜란, 성수환, 신덕제,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윤태자, 이명규, 이상훈, 장원경, 정동현, 한석란, 현혜명, 황영애, 홍선에 작가다. 특히 5월15일에는 S-갤러리에서 작품 옥션 행사가 열렸다. 한석란 회장은 "옥션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며 "정보보다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해 좋은 미술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분들의 구매를 도우며, 옥션 기금은 절반이 모교 발전기금과 남가주총동창회에 후원금으로 기부돼 작가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돕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오픈한 S-갤러리는 최신 시설의 5개 전시홀에 총 6,000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이같이 넓은 전시 공간을 활용해 이번 남가주동창회전이 예년보다 2배 가량 많아진 총 100여점을 작품 전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S-갤러리의 한귀희 대표는 설명했다. 한대표는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미대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한대표는 "S-갤러리는 한인타운 내 제1관에 이어 이번에 한인타운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제2관을 오픈했다"며 "한국과 미주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영리단체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S-갤러리 주소 5151 Romaine St. LA. 문의 (818)808-8185

모교소식



서울대총장단 초청회의

모교(학장 김성희)는 지난 4월16일 모교 교수회의 일정에 맞추어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4명의 총장단(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부처장)을 초청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강화, 학내 다양한 예술공간 및 환경 창출, 예술동 소방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입학식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원장 차동하/모교 동양화과 교수) 9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7일 Zoom으로 개최됐다. 제1부 온라인 입학식은 개식사 및 국민의례, 내외 귀빈 소개, 모교 김성희 학장의 인사말에 이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차동하(85동양) 원장의 신입생 입학허가 선언이 있었다. 차원장은 “비록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전했다. 2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 및 강사 소개가 있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모교와 관악구청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지정 시각예술영재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미술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과 과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들의 융·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느끼고 만들고 사고하는 통합형 예술영재’를 추구하며 나아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친화적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슬기(04동양) 연구원은 지난 5월15일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토요일과 방학 중 미술을 기반으로 한 인문, 과학, 역사 등 융합형 예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관악구 거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5명(사회적배려계층 9명)으로 기초반(30명)을 신규 모집했으며, 2020년도 제8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반(15명)을 재선발했다.



차동하(85동양) 교수 별세

모교 동양화과 교수이며 본회 부회장인 차동하(85동양) 동문께서 지난 6월22일 별세했다. 고인은 1990년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무부학장, 서울대학교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원장을 지냈다.

실기실 사용시간 한시적 연장

모교는 2021학년도 1학기 실기실 사용시간을 보강기간(~6/21)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주중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이며 사용대상자는 미술대학 전체학생(학·석·박사 과정)이다. 주말 및 공휴일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사용대상자는 미술대학 전체학생(학·석·박사 과정)이다. 주말 사용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 신청 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 중 요일·시간대별 실기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모교는 “코로나19 학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미술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개인 방역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서양화과 특별강연시리즈



모교 서양화과에서는 지난 6월19일 유혜종 강사의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동시대 미술사 쓰기’ Zoom 화상특강을 진행했다. 유혜종 강사는 미국 UCLA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코넬대학교에서 미술사와 시각연구과에서 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모교 서양화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유강사는 민중미술을 비롯한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미술적 경향을 미학적 정치성과 글로벌 동시대 미술사 쓰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오윤, 신학철, 김윤수, 박찬경 작가 등에 관한 글을 미술비평과 현장을 비롯해 한국근현대미술사학, 현대미술학 논문집 Concentric: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화과 비대면 스케치여행



모교 동양화과는 지난 5월13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Zoom 비대면 스케치 여행을 진행했다. 교수진과 학생, 강사 등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스케치 여행에서는 풍경 스케치, 학년별 친목을 위한 얼굴그리기 대회등이 열렸으며 진행은 동양화과 학생회장 조하늘(19동양) 동문과 부회장 서현(18동양) 동문이 맡았다. 완성된 작품들은 온라인 메타버스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음(대표 김희재 / 12동양)의 가상전시장(MMCA 서울-A)에서 전시 중이며, 투표를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학교 생활 관련 키워드와 교수님 그림을 활용한 퀴즈대회, 석박사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승과 제자 선 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선배 1인 및 후배 3인을 한 조로 구성하여 핸드폰 롤렛 추첨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커피 및 식사비용을 지원하였다.

서울대 소식

SNU Talk Concert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지난 5월 20일 학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SNU Talk Concert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인이 바라본 코로나19와 인권·공감과 배려의 마음 기르기”라는 주제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적, 심리적 피로감을 인권 차원에서 돌아보고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SNU Talk Concert는 오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UN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한국인 최초 위원이자 도서‘나는 감염되었다’(2021)의 저자인 고려대 서창록 교수의 주제발표 및 참여 패널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오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오늘 토크 콘서트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내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대학 구성원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신체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괴로움이 컸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역학조사에 임했음에도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으로 완치 이후에도 죄책감, 우울감,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한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확진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방청객을 3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됐다. 이처럼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학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장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들의 경험을 직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를 돌봄과 연대의 차원에서 논의한 제1회 SNU 토크 콘서트는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2학기부터 대면수업 재개

서울대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주요 대학들 가운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곳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의 대면 수업 재개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2학기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논의 결과 정부의 방역지침과 각 단과대학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수업 수강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대면 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도 진행한다. 캠퍼스 내에 머무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율 패턴 시간표’ 운용도 장려한다. 기존에는 오전 9시~오후 5시30분에 수업이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교수 재량에 따라 점심 시간, 오전 9시 전, 오후 5시30분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 기간이 3학기째 이어진 데 따른 수업의 질과 구성원 간 유대감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학기에는 최대한 대면 수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2학기 수업에 관한 담화문을 통해 “대면 수업 확대에 인한 방역상의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대학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동선안심이 개발



자연대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동선 안심이’를 개발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는 4세대 동형 암호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의 노출없이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동선과 본인의 동선 겹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어플 설정에서 서울대 구성원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울대 구성원용으로 설정시 구성원들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캠퍼스 환경구축을 위해 서울대 역학조사대응팀에서 파악한 교내 확진자 동선 정보가 반영된다.

이건희회장 유족, 환아위해 3000억



서울대병원원은 지난 6월3일 이견희 회장 유족 측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사업’ 기부약정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원은 이번 기부사업을 ‘이견희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으로 명명하고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병원원은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임명, 향후 서울대는 물론 전국 어린이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9월까지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 후 11월부터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기부를 한국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을 치료하는 전무후무한 ‘의료 플랫폼’으로 구축해 기부자의 큰 뜻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SNU10-10 프로젝트’ 추가 선정

서울대는 세계적 수준의 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SNU 10-10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문분야를 추가 선정했다. ‘SNU 10-10 프로젝트’는 “세계 10위권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선도 집단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수한 역량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학문분야를 선정해 최대 6년간 지원·육성하는 서울대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15개의 학문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6개 학문분야를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종전 우수/잠재 학문분야(2단계)로 구

분했던 지원체계를 우수/유망/잠재 학문분야(3단계)로 세분화 해 보다 많은 학문분야에 기회와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학문분야에는 수학/컴퓨터과학, 화학, 기계공학, 유망 학문분야에는 유전체 의학, 잠재 학문분야에는 미술/디자인, 스포츠/신체활동학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학문분야는 연구의 영향도 및 질적 수준 제고, 핵심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석학 및 전문가에 의한 역량진단(External Review)을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학문분야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안방서 듣는 천일간의 교양수업

서울대 교수진이 가르치는 기초교양 강의가 내 집 안방으로 찾아온다. 기간은 장장 3년, 주제가 천가지에 달한다. 지난 4월1일 네이버TV에서 첫선을 보인 서울대 지식 교양 강연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는 모교 교수들이 천가지 지식 교양 키워드에 대해 강연하는 온라인 콘텐츠다. 네이버TV에 올라와 누구나 볼 수 있다. 현재 ‘역사 속 청원 제도’(김경숙 국사학과 교수), ‘별의 구조와 일생’(윤성철 물리천문학부 교수), ‘진리의 의미’(강진호 철학과 교수), ‘경제의 추격, 추월, 추락’(이근 경제학부 교수), ‘뇌의 학습과 기억’(이인아 뇌인지과학과 교수), ‘양자역학’(김형도 물리천문학부 교수)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첨단기술을 망라한 강연이 올라와 있다. 누구나 궁금하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 10문 10답 구성이며, 한 질문당 영상이 5분 내외로 한 시간이면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강의를 들 수 있다. 천개 키워드의 강의가 완료되면 총 문답수가 1만건에 이른다. 이번 동영상 강연은 모교 재학생의 교양교육을 권장하는 기초교육원과 영상 촬영·편집을 맡은 EBS, 네이버가 협업으로 제작한다. 강연 촬영을 위해 네이버는 모교에 스튜디오까지 마련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본회(회장 이희범)는 2021년도 본회 정기총회 및 제23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지난 6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방역 당국에서 불가피한 행사로 인정함에 따라 참석 동문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이날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신영균(48치의학)·김경한(62법학)·서정선(70의학)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순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총동창회 결산과 회칙 일부개정 승인의 건 등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회사에서 이희범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동창회 운영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취임하면서 약속한 4가지 방침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서울대인 친목과 화합의 마당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간 조찬포럼과 수요특강, 국토문화기행 등 학습취미 프로그램과 회원 우대 병원 및 숙박시설 협약 등 복지 증진,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등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밝혔다. 관악대상 시상식 이후 이승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의안 심의 순서가 진행됐다. 1호 안건인 2020년도 총동창회 결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호 안건으로 회칙 일부개정 승인의 건이 상정돼 우창록(70법학)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회칙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 회칙에 따라 현행 2년 임기인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개정 회칙 시행 후 최초 선임된 회장부터 적용된다. 임기 시작점은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그 이전에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월 중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장을 선임하게 된다.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추대위에서 추대한 후보를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총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또한 총회는 위임장에 의한 출석을 포함해 500명 이상 출석해야 개최하도록 했다. 그밖에 전현직 비동문 전임교원에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무총장 임기와 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켰다.

7월 조찬포럼

일시 : 7월8일(목) 오전7시30분

장소 :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시청 앞)

강연자 : 김형석 명예교수(주제 : 미정)

참가비 : 5만원 또는 연간 50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8월 수요특강

일시 : 8월25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前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주제 : 역경! 논어에게 길을 묻다

참가인원 : 45명 이내(선착순)

신청기간 : 8월 1일-선착순 마감까지

참가비 : 무료(음료 및 도서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서울대미술관 소식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세 시대를 애도하기

2021년 07월 08일 - 09월 05일

전시부문: 회화, 영상, 사진 등 80여 점

참여작가: 강주리, 구은정, 김신혜, 김유정, 나점수, 송수영, 안종현

이소요, 임노식, 지알원(GR1), 한성필, 허윤희

우리가 진정으로 애도해야 하는 것



큰 틀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현 팬데믹 사태는 두 가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기회의 소멸에 관한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건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처리되고 기억되는 방식들, 곧 망각, 무시, 은폐 및 공식적인 오차 등을 접하면서 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국가와 기관, 사람들의 행태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문제, 곧 지속적인 기회의 소멸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된 망각, 곧 점령되고 기획된 기억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점령된 기억은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험 자체보다 더 위험합니다. “체르노빌을 잊으면, 기술과 환경 재해의 위험이 미래를 집어삼킬 것이기에, 더 이상 망각이라는 사치를 누릴 겨를조차 없다.” 2000년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코피 아난(Kofi Annan) 조차 지적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과거가 되풀이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일본 정부는 세계 원자력 기구(IAEA)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미래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무모한 확신이 G7 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또다시 망각의 구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아마도 역사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을 다루지 않는 역사, 점령당한 기억으로 쓴 역사는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세 시대를 애도하기>전을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의식이 이리합니다.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도의 대상은 더이상 새가 울지 않는 숲과 물고기가 사라진 강과 귀뚜라미 소리가 끊긴 가을과 미세먼지로 사라진 파란 하늘입니다. 그것들이야말로 부단히 진실에 등 돌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의 자화상일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푸른 유리구슬 소리: 인류세 시대를 애도하기>전이 지지하는 가치는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진실에 편에 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다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술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미술관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우선하는 이유일 테니까요.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미술사학 박사)

서울대총동창신문-동문을 찾아서

교수관료·경영자..차선 바꾸며 유연하게 살았어요

권영결(69응미)



학부에서 응용미술 전공,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 유학가서 디자인석사학위 취득, 귀국 후 건축학 공학박사. 36년간 교수로 교육·연구에 매진하다 서울시 부시장급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과 한샘 사장, 계원예대 총장 역임후 서울예고 교장. 변화무쌍한 이력의 권동문은 관·산·학을 관통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을 개척한 선구자로 공간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국제 디자인학계에 그가 처음 정립한 용어다. 그동안 쓴 책만 42권에 달한다. 쉬 없이 달려온 삶이다. 최근 그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소문이 돌린다. 지난 5월 31일 서울예고에서 권동문을 만났다.

고등학교 책임자로 오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실텐데,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고등학교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교육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 그들의 보건과 위생, 건강과 안전에 잠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곳이지요.

여기로 오실 때 주저하지는 않으셨나요? 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은 어떠신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 총장 시절에 사석에서 만족사관과 같은 곳에서 교장 제의가 오면 당장 달려가겠다고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 듯합니다. 35년 반을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지만, 대학은 높은 가치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성교육을 펴기에는 이미 늦은 곳이지요. 그래서 '엘리트는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다'는 금언이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제 말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저를 총장이라고 불러요. 아마 저를 더 존중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 더 좋아요.

서울예고는 전국에서 서울대 최다합격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최다 합격생을 낸 학교입니다. 일류 또는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학교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찬사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 일류이고 명문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일류는 사회적 평가이고 세속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명문은 그 위에 도덕적 기준이 부가됩니다. 취임 후 명실상부한 명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예고북(YeGo Book)을 발간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의 약속'이라는 10개의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궤도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십니다.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는 DNA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대학에서 35년, 서울시에서 3년간 도시행정 지방행정을 경험했고, 기업에서 3년간 디자인경영을 했습니다. 오랜 교수생활을 통해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시대정신을,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규율했던 관료 경험에

서는 조직을 유기적 전체로 보는 통합성을, 기업경영을 통해서 시장의 고객을 읽는 눈과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익혔지요. 차선 변경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간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정립하고, 시대를 이끌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시행정도 기업경영도 그렇지만, 인간을 향상시키는 교육이야말로 융합과학이자 종합예술입니다."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설이 돌리는데.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주변에 권유하는 여러분들께서 낸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현충탑에 분향하고 임해야 할 자리 아닙니까? 현재 중등교육의 장은 심히 정치화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격변의 시대에 길을 잃은 초·중등교육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교육을 바로 세워,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지요.

퇴임 후 세어 봤더니 200여 가지 프로젝트를 주도했더라고요. 서울을 걷다 보면 산과 강, 거리와 광장, 작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그때 일한 게 파노라마로 보입니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거리르네상스 등이 그 중 큰 프로젝트였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었습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대 부문에서 디자인 편만멘탈을 정립한 것입니다. 원칙과 표준이 있는 도시로 가는 기초를 닦은 것이지요.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전국적 확산을 주도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을 일으키기 전까지,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오직 상업디자인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사실 디자인은 오래 동안 세분화된 표적시장의 취향에만 맞추어져 있었고, 기업의 유효한 마케팅 수단으로만 존재했지요. 그러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사회 공공재이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도구이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원천 수단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공개념을 주창했던 것이고, 디자이너들의 시선을 '5%를 위한 디자인'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돌렸지요. 이러한 흐름은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서울에는 언제 오셨는지?

초등학교는 안동에서, 중학교부터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보성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최린 선생을 비롯 독립운동가가 준비했던 학교여서, 학풍이 규범적이고 고상하여 이 나이 되도록 동기들과 교류할 때마다 대화의 내용과 화법과 행동에서 향기를 느낍니다. 안동에서 10년, 서울과 외국에서 60년을 살았는데, 모임에 나가면 저를 안동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한 듯합니다.

당시 생소했던 응용미술을 택한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낯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미술과에 재조(才操)가 뛰어나니 가정에서 각별한 지도를 요망함'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서예 대가이신 조수호선생님이 미술선생님이셨는데, 제 그림이나 공작이 늘 정교하고 분석적이어서, 너는 응용미술과가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좌뇌로 그린 그림이었던 거지요. 결국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응용미술과에 입학했고, 오늘날까지 잘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4·19혁명과 군부독재가 시작될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71년에 미술대학 학생회장으로 교련 반대 데모에 앞장서기도 했지요. 요즘 학생들의 분위기와는 매우 달랐는

데, 수업만 끝나면 목로주점에서 시국토론으로 날을 보냈지요. 돌아보면 그 당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개똥철학 논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저항이 낭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졸업후 환경조경학을 공부하고, 미국UCLA에서 디자인 석사, 귀국후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디자인으로 일관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종로에서 태어나 마포에서 살다가 동대문에서 죽는 사람처럼 안쓰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신대륙 탐험을 좋아하는 제 기질에도 연유하겠지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수님께 10년을 배우기보다,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업디자인에서 환경조경학으로, 나아가 공간디자인, 건축계획학, 도시디자인, 국가디자인으로 확장했습니다. 한우물 파기, 외길인생만이 예찬되던 시절에 참 겁 없었다고 생각돼요.

두각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개를.

저에게 석사 박사과정 지도를 받은 직계 제자 중 대학의 전임교수가 무려 44명입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참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사회진출은 전 공영역에 가두어지지 않고 거침없어서, 뽀로로 창업자도 있고, 여수엑스포,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마다 디자인 주역들이었고, 심지어 영화감독도 나왔지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장도 있고, 특허청이나 매스컴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어요.

가치관을 들려주십시오.

30여 년 제자들과 사제동행을 하면서 많은 책을 펴냈는데, 제 책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절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과 담화에서 콜레스테롤을 다 빼는 거지요. 교수 시절에도 느린 행정절차와 방만한 회의 등 대학의 비효율을 혐오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시공간의 설계에서도, 그리고 제반 규정에서도 불필요를 걷어내는 일에 늘 매진했습니다. 제 전공인 디자인은 생태계의 속성인 절약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저도 이콜로지(ecology)는 이코노미(economy)라는, 자연에 내재된 경제원리의 실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담배는 평생 안했고, 술도 거의 안합니다.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없고, 늘 맑은공기와 물, 정한 음식, 가벼운 움직임, 좋은 인간관계, 태평한 마음, 행복한 상상을 하며 삽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피우던 담배도 즉각 끊고, 본능적으로 아픈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려 하는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일생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대 동창회장을 맡으셨는데, 친목단체 우려나가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

부담스러우면 회장 말지도 않았지요. 재미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동창회장의 할 일이라 이산가족 찾기처럼 국내외로 흩어진 동문들을 찾아 연결해주고, 상호작용이 왕성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 할 일이지요. 제가 연임을 했으니, 그렇게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전을 지속하고, 아카이브 제작 사업도 지원하고, 미술나눔육성을 통해 기금도 확충하겠습니다. 또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탈북민 자녀가 다니는 여명학교를 지원하는 사회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껏 늘어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을 창설했습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담:홍지영(89불문/SBS선임기자·총동창신문 논설위원)
정리=김남주 기자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1.5.19.-6.22)-가나다순

■ 연 회 비

부회장 ●김천일(71회) ●임영선(79조) ●채혜선(82응)
이 사 ●김유주(80응) ●송근영(86동) ●이정연(71회)
●장문걸(79회) ●최명애(70회)
회 원 ●이상순(60회)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872-8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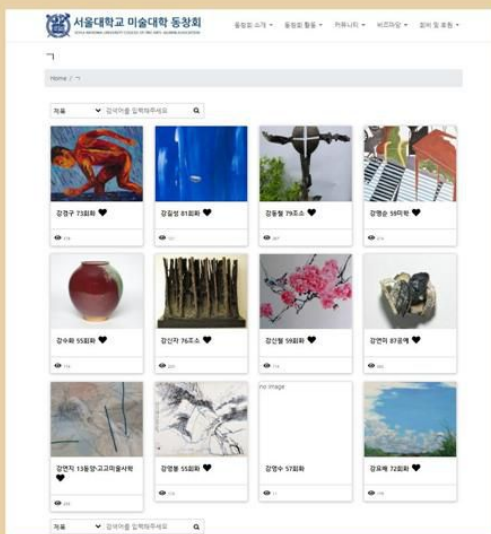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기존계정은 개인계정으로 바뀌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공식계정인 @snuartalumni를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약력과 창작물 이미지를 본회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수정 및 보완해드립니다.

본회는 지난해 온라인 동문전 'ART ON THE LINE' 개최와 동문작품집인 '서울대 미술인'을 발간을 바탕으로 본회 홈페이지(snuarta.or.kr/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에 동문작품 아카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동문전 종료 후 홈페이지로 전환해 공개한 아카이브에는 온라인 전 참가회원 외에 작고회원을 보완해 현재 약 600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횟수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4

만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회는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들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회 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바로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 snuarta@naver.com

제출자료 :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 또는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 금년 회비납부회원(회비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상단 공지사항 참조)

문의 : 02-872-8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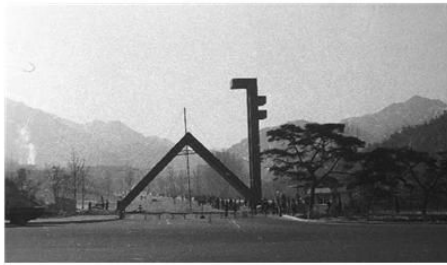
성북구에 작품기증 최만린(54조소)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인 최만린(1935~2020) 동문의 유족(며느리 박희교, 장남 최아사)이 최동문의 주요 작품을 서울 성북구에 기증한다. 성북구는 지난 6월10일 최동문의 유족들과 작품 443점과 자료 2095건의 기증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성북구에

55년 넘게 살았던 최동문은 생전에 핵심적인 작품 126점을 성북구에 기증했다. 성북구는 작가의 정릉동 자택을 매입해 지난해 8월 '성북구립 최만린 미술관'을 개관했다. 이번 기증된 작품 중에는 이전 기증시 적었던 후기 조각작품과 드로잉작업이 여럿 포함돼 성북구립미술관은 작가미술관으로서 시대별 주요 작품을 갖추게 됐다. 기증 자료는 조각에서 최초 구상을 표현한 모형인 마quette 52점과 작가가 평생 수집한 2043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양미술의 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조각의 정체성에 천착한 최동문은 한국 추상조각의 개척자로 꼽힌다.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들을 추상조각으로 구현한 그는 모교 교수학장으로 후학들을 육성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정리하는 데도 족적을 남겼다.

서울대 정문 '샤' 강찬균(57응미)



1975년 관악캠퍼스가 완공된 이후 3년이 되도록 서울대에는 정문이 없었다. 학교는 정문을 짓고자 몇 개의 시안을 제작하기로 했고, 강찬균 동문도 시안 중 하나를 제출했으나 당시 제출한 시안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정문의 디자인이 쉽게 정해지지 않아 결국 교수

9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까지 구성됐고, 강동문은 이 회의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지금의 '샤' 모양 정문 안을 제안했다. 당시에는 정문 디자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강동문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쉬움이 남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했다. 그가 처음 생각한 '샤' 정문은 오렌지색의 더욱 큰 정문이었으나 여론을 고려해 조금 더 작게 황토색으로 만들어 1978년 2월 완공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4천만원의 예산과 42.3톤의 철근이 투입됐다. 물론 지금의 '샤' 정문은 도색을 거치고 조명이 달리며 더욱 화려한 문으로 변신했지만 강동문은 그때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창작하는 사람들은 만들 당시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제작하지만, 막상 지금 와서 작품을 보면 아쉬워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드로잉 이벤트 윤호섭(62응미)



윤호섭 동문이 지난 6월17-22일 열린 '2021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드로잉 이벤트, 'everyday eArthday, everyday PEACEday(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평화의날)'를 열어, 지난 6월19일 평창올림픽메달플라자에서 영화제를 찾은 어린이 선착순 20명에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줬다. 윤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국내 우수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국민대 명예교수이자 디자인과 환경을 접목한 그린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전시와 강연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제 측은 "이번 윤호섭 작가 드로잉 이벤트는 2002년부터 인사동거리에서 시작된 티셔츠 퍼포먼스로, 흰 티셔츠에 친환경 페인트로 멸종 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인사동 티셔츠 퍼포먼스' 연계 이벤트"라며 드로잉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올해 영화제 티켓교환권을 1매씩 증정했다. 한편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와 알펜시아 일원에서 '평화, 공존, 번영'을 주제로 열려, 총 26개국에서 온 78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아침이슬 50돌 헌정음반 김민기(69회화)



'아침이슬' 50돌을 기념하는 김민기 동문의 헌정앨범 음원이 6월6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공개된다. 첫 주에 공개한 음원은 메이트리의 '철망 앞에서', 유리상자의 '높은 군인의 노래', 엔시티(NCT) 태일의 '아름다운 사람', 한영애의 '봉우리'다. 김민기헌정앨범에 들어가는 음원은 이날 1차 공개 이후 6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 4~5곡씩 묶어 공개한다. 마지막 4주 차에는 참여 가수 모두가 함께 부른 '아침이슬'을 선보인다. 앨범 작업에는 학전 공연장을 거친 후배 가수들을 중심으로 장르와 세대를 망라한 뮤지션들이 합류했

다. 가수로는, 권진원·나윤선·노래를찾는사람들·박학아·알라웬디(레드벨벳)·윤도현·윤종신·이날차·이은마·장필순·정태춘·크라잉넛 등이 참여했다. 학전 뮤지컬 무대에 섰던 배우를 대표해 황정민도 참여했다. 조동익·윤일상·박인영 등 시대를 빛낸 뮤지션들이 편곡을 맡았다. 음원 공개를 마친 뒤 7월에는 CD로 발매하고, 8월 이후에는 LP도 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콘서트는 9월 이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20일에는 '열린음악회'(KBS1) 김민기특집방송이 있었다. 이번 헌정앨범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컬처로드'사업의 하나로, '아침이슬 50주년, 김민기 헌정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기획해 왔다. '아침이슬' '친구' 등이 들어간 앨범 '김민기'는 1971년 발표된 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매개체가 됐다.

트라이엠프엑스와 MOU체결 전유혁(94조소)



픽토스튜디오(대표 전유혁)가 크로스체인 기반 탈중앙화 NFT 플랫폼 개발사 트라이엠프엑스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콘텐츠를 NFT로 출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픽토스튜디오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이다. 1988년 모교 조소과 출신의 파운더들이 국내 초대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출발하여 현재는 CF, 캐릭터, 3D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전문회사로 성장하였다. 대표작품으로는 국내 최장 TV 클레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짱짱당어리(99~05)', KBS TV유치원 메인 캐릭터 '파파 노노',

KBS 방영 3D애니메이션 시리즈 '아기종벌레 포포', '뱅크스쿨' 등이 있다. 특히 2020년 EBS에 방영한 3D애니메이션 '애코와 친구들'은 IT 기술을 적용하여 증강현실 그림책 '애코와 숫자 친구들'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프로듀서로 재직하다 2004년부터 회사대표를 맡게된 전유혁 동문과 주요 임직원들은 10~20년 이상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해 온 베테랑들이다. 전동문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애니메이션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픽토스튜디오는 현재 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방송국, 투자사, 제작사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트라이엠프엑스는 미술, 스포츠,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고 있으며, NFT 발행 플랫폼 ENFTEE와 NFT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Sole-X를 운영중이다.

ESG는 기업의 필수요건 **최소현(95산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교양선택이라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말하자면 기업들의 전공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활동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6월23~24일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마스터클래스3: ESG+ 브랜드·마케팅·기술' 세션의 좌장 겸 발표자로 나선 최소현(퍼셉션 대표) 동문이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존재로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브랜드 관점에서도 ESG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인 최동문은 브랜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ESG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사람이나 기업, 국가 등 모든 존재를 브랜드라고 보는 그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조건으로 '명확한 존재 이유', '일관된 브랜드 경험', '내외부 약속 이행을 통한 애착관계 유지',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노력'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CSR이 기업의 선의에 기댄 도의적인 차원이었다면 ESG는 명확하게 성과지표로 검토되고 있다"며 "ESG 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혼선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명확한 평가지표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크기와 분야 등 각각의 노선에 따라 선택지를 가져가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 사진가 **강제욱(96조소)**



다큐멘터리 사진가, 시각예술가, 전시기획자, 팀디렉터, 환경사진가 등 여러 이름을 가진 강제욱 동문은 자신을 "문명의 미래를 기록하고, 현재 인류에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어린 시절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보고 고고미술사학자를 꿈꿨다는 그가 미술사학 대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4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단원으로 파라과이에 파견되면서 부터다. 모교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

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로 진로를 고민하게 된 강동문은 2007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 일대의 환경오염 지역과 재난현장을 찾아다녔다. 재난현장을 찍고 있던 그는 팔다리 없는 인형과 바퀴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장난감을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한편 강동문은 월간 'Asiana Culture', 'GEO', 'DOVE'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해왔으며, '사진비평상' 작품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와 사진집 '더 플래닛'을 냈으며, 현재는 10년을 계획으로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무직타이거 동량 **송의섭(04디자인)·배진영(07디자인)**



송의섭, 배진영 동문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무직타이거'는 호랑이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문구류, 컵 등을 만드는 회사로, 대표 캐릭터 동량(똥똥한 호랑이) 시리즈는 2년 만에 누적 판매량이 30만개에 달한다. 에어팟 케이스·태블릿 파우치·노트북 스티커 등 20·30대 물건에서 무직타이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동문과 배동문은 모교 캠퍼스커플로 만나 졸업 직후 대기업 소속 디자이너로 7~8년간 활동했다.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복지도 좋았고 배울 점도 많았지만, 내 브랜드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사 전까지 여러 캐릭터를 그리던



두 사람은 어딘가의 굴레에 속하지 않은 채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에서 '무직(無職)'과, 글로벌시장에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민화 속 호랑이를 떠올렸다. 2018년 브랜드를 시작한 '무직타이거'는 민화 느낌 나는 일러스트를 패터나시켜 패브릭제품을 제작하면서 리빙제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다 잡화제품으로 방향을 틀었다. 3주년을 맞은 무직타이거는 작년 매출보다 160% 성장했다. 해외 트래픽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해외 포함 브랜드 입점가게는 120~140곳에 달한다. 홈페이지에 하루 7천명이 방문하며, SNS 팔로워 수도 3배 넘게 증가했다. 내년 호랑이해에 있을 특수를 대비하고 있다는 송동문은 앞으로 해외진출과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집 5주년기념 바이닐 **임성빈(빈지노·08조소)**

래퍼 임성빈(빈지노) 동문의 정규 1집 '12' 발매 5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바이닐(LP)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소속사 BANA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12' 한정판 바이닐 응모에 하루만에 6000명이 몰려들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온라인 사전 판매 개시와 동시에 품절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7월 말에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량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2016년 5월31일 발매된 '12'는 국내 최정상급 래퍼로 자리매김한 빈지노의 첫번째 정규앨범이라는 점에서 한국 힙합 신에서 큰 의미를 지닌 앨범이다. 특히 이 앨범은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과 노래 부분에 각각 노미네이트되는 등 힙합 음악팬들뿐 아니라 평단의 호평까지 받았던 수작이다.

에르메스미술상 수상 **류성실(13조소)**



2018년 말 출연한 영상으로 나타난 체리장은 천국에서 '일등시민'이 된 본인 소식을 2020년 12월 영상을 통해 전하며 자취를 감췄다. 이 영상을 기획하고 체리장을 연기한 류성실 동문이 19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가 펼친 '1인 미디어 쇼'를 높이 사 신선한 예술로 인정한 것. 온라인에선 류동문의 예술세계에 환호하는 이가 늘면서 체리장을 숭배하는 팬덤까지 생기고 그를 사칭한 SNS계정까지 나타났다. 그를 실존인물

로 착각해 "저를 구원해 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이도 있다. 그의 작품은 'K키치'라고 불릴 만큼 토속적 가치나 가부장적 권위를 비틀어 해석한다. 1인 미디어 세태, 음모론, 구시대적 전통 등이 모두 풍자 대상이다. "실체 없이 뜬구름 잡는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가 그동안 선보였던 전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시가 어려워지자 영상작업에 더 집중한 그가 이색적이고 차별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서 'exotic(이국적)'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해 확보한 영상은 촌스럽고 조악하다. 기성사회의 노골적이고 천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는 그는 향후 전시작업과 유튜브에서도 이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이다. 영상 속 체리장의 스토리 설정상 그는 현재 '하늘나라'에 있다. 팬들은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며 그의 부활과 다음 영상을 원하고 있다. 류동문 답했다. "여러분! 체리장은 절대로 공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잔 정진국(48회화)



한국의 세잔이라고 불리는 고 정진국(1928~2018) 동문의 특별기획초대전이 갤러리청주에서 열렸다. 정동문의 서거 3주년을 추모하는 의미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정동문의 작품들과 추모전추진위원들의 개인작품 또는 정진국과의 추억이 서린 작품 10여점이 함께 전시된다. 추진위원회는 “사과하면 떠오르는 화가는 세잔이지만 한국에도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생동감이 흘러넘치는 사과 그림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가 정진국이 있다”며 “세잔이 사과 정물만 그린 것이 아니듯 정진국 그림의 스펙트럼도 깊고 넓음을 이번 전시를 통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문은 28년 충남 천안 목천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모교 서양화과를 중퇴, 6.25를 피해 충북에 정착하여 청주사범학교 및 청주 대성중학, 대성여중, 청주세광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약 30년간의 교편생활을 했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작가의 등용문이었던 제1회(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의 특출한 재능을 인정받았으나 학생 신분(당시 모교 재학중)으로 출품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돼 세잔의 화제가 되었다. 훗날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무려 5회(1964~1974)에 걸쳐 입선했으며, 청주시문화사, 충청북도문화사,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목우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은퇴 후 85세 와병으로 눕는 순간까지 평생 한 번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고, 7년간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다 2018년 향년 91세로 작고했다.

정상화 정상화(53회화)



한국 단색조 추상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정상화 동문의 대규모 개인전 ‘정상화가 5월22일~9월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상화의 60여년 화업을 총망라한 이번 전시는 한국 추상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작가의 참모습을 살펴볼 기회”라며, “한국 미술사의 맥락에서 작가의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토대를 확장하는 시도로써 정상화의 작품이 지닌 미술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시대적 맥락을 살펴본다. 작가가 머물며 작업했던 여러 공간(서울·고베·파라·여주)과 시간을 잇고 연대기적 흐름을 큰 축으로 하여 그의 독특한 조형 체계가 정립된 과정을 추적한다. 동시에 종이와 프로타주 작업 등 국내에서 자주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과 미발표작들을 통해 작가의 조형 연구와 매체 실험을 조명한다. 전시는 ‘추상실험·단색조 추상으로의 전환·격자화의 완성·모노크롬을 넘어서’ 등 4개의 주제와 특별 주제 공간인 ‘종이와 프로타주’, 그리고 작가의 작업 세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기록물을 비롯해 작가의 초기 종이 작업을 소개하는 자료 보관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정동문은 1932년 경북 영덕 출생으로 1953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해 1957년 대학 졸업 후 ‘한국현대작가초대전’(1960), ‘악튀엘 그룹전’(1962), ‘세계문화자유회의초대전’(1963) 등 다수의 정기전,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제4회 파리비엔날레(1965), 제9회 상파울루비엔날레(1967) 등에 한국 작가로 출품하였다. 1967년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1년 후 귀국한 정동문은 1969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 고베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이후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다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작업에 몰두하였다. 1992년 11월 영구 귀국해 1996년 경기도 여주에 작업실을 마련한 후에는 줄곧 한국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김민기(69회화)

김민기 동문의 예술과 정신에 영향받은 작가들의 오마주 전시 ‘김민기, 아침이슬 50년’이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문 외 작가 22인의 작품이 소개된다. 또 전시를 위해 수집된 김민기 관련 아카이브와 함께 개막식 당일 김민기의 음악세계를 조명하는 김창남 교수와 강한 경기문화재단 대표 등의 토크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김동문이 ‘아침이슬’을 발표한 지 50년을 맞은 올해 트리뷰트 앨범과 콘서트 등 여러 가지 헌정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볼 기회가 없었던 김동문의 내밀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어릴 적 그린 스케치, 직접 그려놓은 악보들을 비롯해 메모와 편지, 연출노트 등의 자료들, 앨범 제작을 위해 촬영한 인물 사진 등 그의 활동을 담은 기록사진과 CD와 LP 앨범들을 비롯해 VHS 비디오테이프, 카

세트테이프 등의 창작물과 기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대본집이나 악보집, 프로그램 북과 포스터 등 학전극단의 활동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선보인다. 한편 김동문 개인에 대한 정보 이외에 그가 활동해온 시대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담은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그의 내면과 주변의 인물들 당대의 사회환경 등 김동문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전시한다. 이번 오마주 전시에 출품한 미술가들의 작품은 김동문의 예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시대와 동행한다. 임옥상(68회화) 동문은 1970년대에 그린 구작을 통해 같은 세대를 살아온 김민기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으며, 박재동(76회화)동문은 김동문의 캐리커처를 전시한다. 한편 김동문은 1951년 출생으로, 모교 회화과에 입학해 스무 살 청년기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국민가요 ‘아침이슬’을 비롯해 수많은 명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이자 ‘지하철1호선’을 비롯한 수많은 뮤지컬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으며, 극단 학전을 설립했다.

생명의 숲과 바다 김병중(74회화)



남원시는 김병중 동문의 세 번째 기증작품 특별전시 ‘생명의 숲과 바다’를 6월8일부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의 기증작품 중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과 바다를 주제로 한 90여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고졸미(古拙美) 넘치는 친근한 작품들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영국박물관(런던)과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토론토)에 작품이 소장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생명의 숲과 바다’는 미술관 전관에서 진행되는 만큼 작품 수량도 많고, 스케일도 커 그간 김병중 화백의 작품을 기다려온 이들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작 <생명의

노래>시리즈로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 시리즈에서 파생된 <송화분분>은 이어령 교수가 “생명의 최소 단위에 주목하는 김병중 화백의 그림이 놀랍다”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존엄은 크기에 비례하지 않겠냐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또한 생명의 발원인 숲과 바다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들을 만나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2021~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남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김병중 선생님이 남원시에 기증한 400점의 작품 중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여름에 어울리는 숲과 바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한껏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 063)620-5660.

진혼-사미인곡 정종미(76회화)



정종미 동문이 오는 7월11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정종미는 지금까지 'She', '미인도', '보자기 부안', '역사 속 종이부안' 등의 연작을 통해 익명의 여성과 역사 속 실존하는 여성들을 여러 차례 작품으로 소개했다. 한국 여성의 특징을 한지에서 발견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닥섬유의 질긴 습성과 강인한 근성을 한국 여성의 성정과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인전을 가졌다. 저서로 '우리 그림의 색과 칠', 'KSH 재료기법 활용 매뉴얼' 등이 있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지에 소장돼 있다.

유기체 & 영원성 김승환(80조소)



조각가 김승환 동문의 초대전 '유기체&영원성'이 지난 6월10일부터 7월 11일까지 밀라노 시립 프란체스코 메시나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평론가이자 브레라 아카데미 교수인 마르티나 코르냐티가 기획한 이 전시에서 김동문은 밀라노 박물관에 한국 조각가가 최초로 초대됐다. 박물관이 소장한 거장조각가 프란체스코 메시나(Francesco Messina, 1900~1995)의 테라코타, 밀랍, 브론즈 작품들과 스테인리스 스틸에 미러 피니싱 기법을 사용해 거울처럼 반사되는 효과를 표현한 김동문의 최신작 '유기체' 시리즈와 테라코타를 재료로 1990년대 제작한 구상작품 '영원성' 시리즈가 함께 전시



된다. 1990년대 전통조각의 상징이자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와 피에트라산타에서 다양한 전통적 재료의 테라코타 작업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해오던 김동문은 이후 2005년 강철을 이용해 반투명, 반사등 현대적인 테크닉을 시도 작품의 변화를 꾀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국립 카라라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김종영 조각상, 밀라노 아트페어 비평가상 등을 받았고 현재 인천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 현대조각 공모전우수상, 김종영 조각상, 밀라노 아트페어 비평가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들은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보제토박물관, 이집트 아스완, 호주의 퍼스와 본다이 도시에 소장되어있다.

사물의 꿈-그의 초상 김항록(80조소)



김항록 동문의 개인전 '사물의 꿈-그의 초상'이 서울 북촌 갤러리한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다루고자 하는 서사(敘事)는 이전과 달리 '인간 그 자체'다. 10여점의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얇은 금속 판의 나뭇잎들이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떠 있는 듯하지만 만져보는 순간 그 견고함에 놀라게 된다. 여기에 파편화되어 재구성된 인간의 그림자 실루엣이 나뭇잎들과 어우러져 한몸이 돼 있다. 김동문은 이를 "인간과 식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 새로운 하이브리드적 형태를 만들었

다"고 설명했다. 조형적으로 기존의 무거운 양감의 조각과 달리 조금은 날카로운 금속 조형물이 보여주는 선과 면의 순수한 요소들로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고도로 상징화해 보여주고 있다. 김동문은 조각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조각 작품은 물론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 세상에 만연한 갈등과 폭력의 서사를 작품에 담았다.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동국대에서 예술대학장, 문화예술대학원장을 지냈다. 10여차례의 개인전과 여러 차례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최우수상(1992), 모란미술대상(1995), 토탈미술상(1997), 김종영조각상(1998), 국가보훈처 표창 등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상하이대사관 관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코스튬 플레이 배준성(86서양)



렌티큘러 작가 배준성 동문이 지난 6월4일-7월20일 대구 수성스퀘어 윤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렌티큘러는 감상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다. 복장이나 스타일 등을 훑내내는 '코스튬 플레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배동문의 미공개 작품 20점 등 26점이 선보인다. 전체가 렌티큘러로 이루어진 정물 시리즈, 회화와 부분 렌티큘러 혼합 방식, 전체 회화 등 배동문의 작업 방식과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시회는 당초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미뤄졌다. 배동문이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은 10년 만이다. 배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신종 코로나 속에서도 시민들이 문화 전시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배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서울과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20여회 개인전과 단체전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민속촌,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보자르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살과 금 정주영(88서양)

정주영 동문의 개인전 '살과 금 Flesh and Fissure'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18일까지 누크갤러리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알프스 산과 들의 풍경을 담은 그림 19점과 추상화에 가까운 '무제' 3점을 선보였다. 정동문은 지난 2006년 알프스를 답사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알프스 연작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 주변의 산을 주로 다뤄온 정동문은 "시간에 대한 순환적 사고와 산 풍경을 통해 느끼게 되는 반복되는 전형성이나 재현 구조를 통합해보려는 시도로 알프스 연작을 그



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졸업후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수학하며 개념미술가 안 디베츠 교수에게 사사받아 마이스터슐러를 취득했다. 1999년 첫 개인전(금호미술관) 이래 개인전 17회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ncounter 구자영(88서양)



가 “다른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탐구한” 결과물이다. 그러다보니 마주치는 대상도 카메라 앵글에

비디오아티스트 구자영 동문의 작품이 신기동 갤러리노마드에서 전시 중이다. 실체와 환영의 만남.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현실과 달리 그의 작품에서는 다른 시간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

잡힌 ‘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주치는 주체는 사람과 사람이 될 수도, 정보와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번 전시 주제가 ‘마주침’의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 ‘Encounter’이다. 그의 비디오아트에 등장하는 창(window)은 안과 밖이 만나는 경계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환영과 실체의 관계에 집중하고 이를 나타내는 도구로 ‘창문’을 택했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구동문은 그곳에서 비디오아트는 현대예술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퍼포먼스가 실체와 환영(이미지)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귀국 후 비디오아트 작업에 매진한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비디오아트 작가군’으로 아카이빙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여주도자직설4 임의섭(89공예)



임의섭 동문의 개인전 ‘여주도자직설4 임의섭 개인전’이 지난 27일까지 여주도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능서면 작업장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는 임동문은 강렬하지는 않지만 음식을 담았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담백하고 간소한 생활자기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에는 조형적 미감을 가득 품은 이른바 ‘작품’을 내놓았다.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기물의 형상이기에

그간 걸어난 여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작방법과 장식적인 면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다. 신작의 형식적이고 시각적인 주제는 소나무와 산수유로, 작가의 기억 속 강렬한 잔상 회고를 통해 질박한 분청 위에 그려 낸 것이다. 임동문은 여주에 정착하기 전 머물던 인천시 백사면의 불개익은 산수유, 여주 세종대왕릉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마주한 기억을 작품 속에 새겨 넣었다. 한편 모교 공예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임동문은 이후 명지대, 아올다, 광주요 등에서 도자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했다. 모교와 한국전통문화대, 서울여대 등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바다, 그 안의 나, 내 안의 바다 김정아(90서양)



김정아 동문이 지난 5월 24-28일 거제시청 1층 로비에서 바다, 그 안의 나, 내 안의 바다’를 주제로 실제 바다 조업에 쓰이는 어구와 직접 수집한 바다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작품 10여점을 선보였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경남 거제시가 해양쓰

레기 심각성을 되짚어보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마련했다. 서울 출신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를 졸업한 뒤 20여년 전 거제에 정착했다. 바다와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생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0년 전부터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대표 작품은 ‘9시 46분’과 ‘디너 2011’이다. 9시 46분은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시간으로 보여주는 환경위기 시계로, 아름다운 자연을 쓰레기가 서서히 덮여가고 있는 상황을 정교하게 나타내 탄성을 자아낸다. 디너 2011은 식탁에 올라온 고등어의 배 속에 우리 스스로 버린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바다쓰레기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을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눈길을 끈다.

캐슬 김남표(91서양)



김남표 동문의 개인전 ‘캐슬(castle)’이 6월30일까지 갤러리나우에서 열려 ‘Instant landscape(즉흥적 풍경)’ 연작 15점을 소개한다. 작가가 휴지와 면봉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그린 초현실주의 그림들이다. 그는 모교 재학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지만, 이름을 알리거나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도 마음 맞는 작가들과 미술적 실험을 하는 데 천착했다. 본격적으로 개인 활동을 시작한 건 2007년. 파스텔을 사용해 정교하면서도 몽환적으로 그려낸 기묘한 풍경들은 관객과 평단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러던 중 2010년 갑자기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다. “제 작품의 이미지가 파스

텔을 사용한 초현실주의 풍경화로 굳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평단과 미술시장이 제게 ‘비슷한 화풍의 신작을 계속 그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는 게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다시 그림 그리는 설렘을 느끼기 위해 김동문은 끊임없이 변신을 꾀했다. 유화물감을 비롯해 쇠조각, 인조털, 목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여러 오브제를 부착해보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3년간 제주에 살며 숲을 그렸다. 이 그림을 50조각으로 나눠 판매하는 등 독창적인 판매 방식도 시도해봤다. 김동문은 “재료와 기법, 이미지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제목인 ‘성’은 그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작품세계를 의미한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몸이 쉴 수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구속하는 양면성을 지닌 곳이다. “성을 지키면서도 수성에만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 작품세계의 영토를 넓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름꽃 장진(92동양)

한국화가이자 대구대학교 교수인 장진 동문의 개인전 ‘여름꽃’이 6월 21-30일 인천시 중구 개항장공목에 있는 도든아트하우스의 초대전으로 개최된다. 그 동안 다층적 의미를 간직한 달빛을 주제로 작업해왔던 장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난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장동문은 난을 모티브로 한 이유를 “나는 작업을 새로 시작할 때 난을 치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작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한지와 붓이라는 물성은 작업을 시작할 때 오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작업에서는 한지가 아닌 캔버스에 석채와 분채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긋고 지우고 닦는 행위를 반



복하며 나온 작품이다. 장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우리미술관을 비롯 인천아트플랫폼, 금호미술관, 학교재 등 국내외 다수의 기관에서 총 2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OCI미술관 1기 레지던시, 문체부 주최 한국-러시아 국제미술교류전 참가작가,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선정됐으며 현재 인천문화재단과 동아제약, 인하대병원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젊은 모색 강호연(04조소)·신정균(05서양)



5월28일-9월22일 개최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인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전에 강호연 동문과 신정균 동문이 참여하고 있다. 1981년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진 작가 발굴 기획 전시가 40주년을 맞았으며 '젊은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올해 20회째 전시를 연다. 그동안 '젊은 모색'을 통해 이불, 최

정화, 서도호, 문경원, 이형구 등이 이름을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다. 올해 참여하는 신진 작가는 15명이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사진, 영화, 도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30대 작가들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전시는 140여점의 신작을 포함해 총 160여점을 공개한다. 작가들은 각자가 다루는 매체의 속성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미술과 사회의 접점에도 관심을 드러내는 작업을 보여준다. 강호연 동문은 시티팝과 서울 야경 이미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국 사회의 호황기를 청각적, 시각적으로 회상하게 한다. 40주년을 기념해 19회까지의 '젊은 모색'전 자료, 주요 작품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프로그램, 인터뷰 영상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전시도 마련됐다.

그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유현경(05서양)

유현경 동문의 개인전 '그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Nobody Hurt by Painting)'가 지난 6월1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인천 중구 참외전로에 위치한 잇다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잇다스페이스에 따르면 회화 100호 이상 작품 15여 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힘든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가 작품의 자화상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는 기획의도로써 유동문이 초대됐다. 초대된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작가노

트를 통해 "그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그림은 관계 양상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도 아닌 것이다"고 규정하며 "아끼는 것들을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의 그림을 그려본다. 그림을 그린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림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압축된 말로서 작품과 이번 전시회 제목 '그림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를 표현했다.



조여드는 낮 천창환(05서양)

천창환 동문의 개인전 '조여드는 낮(A Day Tuner)'이 6월23일~7월18일 삼청동 아트스페이스영에서 열린다. 천동문은 현실의 활력과 압박감이 뒤엉킨 풍경 이미지를 캔버스 프레임에 맞춰 왜곡하고, 물감과 붓질의 물성을 화면에 쌓아가며 일상의 무게를 견어내는 듯한 작업을 보여준다. 천동문은 일상의 고정적이지 않은 별다른 것 없는 장소에서 일종의 순간적인 편안함과 균형감을 포착하고, 이를 카메라로 기록 후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이미지상의 형상과 바탕을 일종의 조형 요소처럼 생각하여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물감의 두께나 농도 차이, 붓질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림을 그려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것들이 그림 안에서 부딪히며 읽히는 것과 보이는 것, 주된 것 과 주되지 않은 것, 형상과 바탕, 화면의 깊이감과 그림의 물질성, 구상과 추상 등이 회화적 표현 안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다. 숨가쁜 도심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던 순간적인 평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Portraits of the ugly 김승환(06시디)



김승환 동문의 개인전 'Portraits of the ugly (매사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의 초상)'이 지난 5월 7~28일 청주 스페이스미술관에서 선보인다. 일러스트레이터인 김동문은 드로잉, 오브제, 아트북 등 다양한 방면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동물의 시선을 작업의 프레임으로 활용해 여러 인간 군상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소재로 삼는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 연작을 중심으로 새가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과 섬처럼 떠도는 개인들을 그렸다. 그림을 살펴보면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원근법이나 아웃포커스 같은 기법이 없다. 대신 등장인물의 한명 한명이 다른 상

황과 입장으로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검정 스텀레기봉투마저 나름의 이야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의 일관된 표현에는 절묘한 재료와 기법이 내용을 강화한다. 능란하게 재주를 보여주고자 하지 않고 낙서와 같은 표현도 등장시킨다. 어릴 적 많이 사용하는 연필 스케치와 크레파스(오일파스텔) 채색도 서슴치 않는다. 또 어둡고 못난 등장인물을 표현하지만 위트있는 어법과 이야기로 인해 작가가 제시하는 세계관을 발견해내기 수월하다. 특히 전시에서 반복적이며 힌트처럼 돌출되는 패브릭 입체작품들은 그림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김동문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2019년 개인전 'I used to be your neighbor♡, SupplySeoul'로 주목받았다. 인스타그램에서 'bird_pit'이란 이름의 계정으로 작품을 선보이며 1만5천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2018년부터 서울과 뉴욕 등에서 그룹전을 개최했고 9권의 아트북을 출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과 입체 작품 68점을 선보였다.

How to take care of ____ 문서진(07조소)



을 실험한 것이죠." 그가 전시를 기획한 계기는 외국에서 언어 소통으로 고생했던 경험에서 출발했다. "생각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하는데, 작업에

지난 5월28일~6월6일 금천예술공장 3층에 있는 PS333에서 열리는 전시 '____를 대하는 법'(How to take care of ____)'에 참여한 문서진 동문은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 작가와 협업하며 발생한 화학작용

관한 설명과 피드백은 영어를 통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했던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끼리 모여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비평도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스터디 모임 '빙그레 아카이브'가 4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여느 방식과는 달리 5명이 모두 기획자겸 작가로 참여해, 유사한 관심사로 묶인 두 명씩 짝을 이뤄 서로 다른 5개의 결과물을 제작한 것이다. 문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개인전으로는 '살아 있는 삼'(2020), '문서진 첫 번째 개인전'(2014)이, 단체전은 'Contemporary Landscape in Flux'(2021), 'A Perfect Measurement'(2019) 등이 있다. 'Steketee Scholarship'(2018), 'J.Field/R.Field Family Travel Scholarship'(2018), '하동철 창작지원상'(2011)을 받았다. 현재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신간



소소한 행복 지내온 삶의 이야기와 그림 설화영(74음미) 저 / 생각나눔

‘소소한 행복’ 제목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있다. 저자의 살아온 ‘소소한 이야기’에 곁들여진 유화 24점이 숨 쉬고 있는 산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온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 필요한 것을 바로 얻는 것 등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지만, 시선을 바꾸어 바라본 세상에는 전혀 반대 의 것이 있다. 오히려 작아서 행복하고, 소소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저자의 수필과 시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설화영 동문은 화가이자 수필가로 모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2회와 그룹전 40여회, 행주대전과 여성미술대전에 입상했으며, 2019년 한국산문을 통해 등단했다. 현재 한국산문협회 이사이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세트

김충원(79음미) 저 / 진선아트북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세트’는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와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 채색 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는 가장 편안하고 친근한 드로잉 대상인 ‘나무’를, 가장 단순한 재료인 ‘펜’과 ‘연필’을 이용하여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표현하며 즐길 수 있도록 안내

한다. 기초적인 나무 그리기와 펜과 연필 드로잉 기법을 알려 주고, 짧은 에세이와 함께 실린 50여 종의 나무 드로잉은 흑백 사진처럼 담백한 선 드로잉의 매력과 감성을 느끼게 한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 채색 편’은 나무의 색채와 그 이야기를 담은 감성 드로잉북이다. 연필처럼 편안하고 손쉬운 도구인 ‘색연필’을 사용하여 채색의 기초와 기본 감각을 배우고, 자신의 느낌과 개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보고 따라 그리며 연습할 수 있는 밑그림과 함께 나무에 관한 짧은 이야기들을 더하여 나무 드로잉과 채색의 방법을 즐겁고 부담 없이 익히도록 도와준다. ‘오늘도 나무를 그리다 세트’와 함께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삶을 꿈꾸며 행복한 나무 드로잉을 시작해 보자!

명상여행 마음

고성원(84동양) 그림 글 김충현 / 인북스



이 책은 순진무구한 동자승과 지혜로운 스승의 문답을 엮은 선만화 형식의 에세이집이다. 옛 선사들의 화두를 오늘의 삶과 생활방식에 맞춰 재구성한 1~3컷짜리 그림을 통해 마음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명상여행을 떠난다. 5개의 장으로 나뉜 95개 꼭지의 예화에는 선지식들의 시대

를 뛰어넘는 깨달음과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삶은 늘 무가치하고 고통스럽기만 한지 번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기획된 이 책은, 해학적이고 기지에 넘치는 삽화를 대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찬찬히 음미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예화와 함께 덧붙인 간결한 풀이가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고성원 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암각화에서 이중섭까지’,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 ‘이슬우화로 배우는 경제’,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 등의 그림을 그렸다.

르네상스 미술:그 찬란함과 이면

이연식(90서양) 옮김 / 다카시나 슈지 저 / 제승출판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그 시대의 사상적, 정신적 배경과 예술의 관계를 이야기 하는 책. 이 책의 서평에 따르면 중세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기이고 르네상스는 현실 세계를 긍정함으로써 신의 영역에 이르려 했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발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융합하려는 시도는 르네상스 문화에서 소위 이교의 사상과 철학을 기독교의 교리와 결합하려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르네상스 미술은

단순히 인간 중심의 현실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과 이상향을 담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에 걸친 서양미술사학계의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미술의 미묘하고도 난해한 의미를 마치 탐정의 추리처럼 흥미롭고도 명료하게 밝힌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찬란한 광채와 매혹적인 어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옮긴이 이연식 동문은 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현재 저술, 번역,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연식의 서양미술사 산책’부터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멜랑콜리’, ‘괴물이 된 그림’, ‘브뢰켈’, ‘불안의 미술관’, ‘예술가의 나이들에 대하여’, ‘뒷모습’, ‘드가’ 등을 썼고 ‘쉽게 읽는 서양미술사’, ‘다시 읽는 서양미술사’, ‘한국 미술: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Museum Gate

조새미(92공예) 저 / 아트북프레스



코로나로 해외의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미술품을 감상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가운데 미술관 기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온택트 시대 미술관 여행서. 이 책은 코로나가 끝나면 꼭 들려야 할 미국과 유럽, 일본의 약간은 생소한 미술관과 박물관 14곳을 소개한다.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베를린의 국립미술관 등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 꼭 들

러야 할 여행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책은 뮤지올로지의 뿌리 깊은 서구 중심주의와 약탈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지만 미술관 설립 역사에서 꼭 알아야 할 뮤지엄을 소개하고 있다. 조새미 동문은 동시대 미술과 공예 연구에 오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한 연구자이다. 모교 공예과와 동대학원, 미국 크랜북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를 졸업하고 영국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MPHIL 학위를, 상명대학교에서 미술이론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학교 금속 조형디자인과에서 겸임교수로, 서울대, 단국대, 상명대, 경기대 등에서 공예론, 조형이론, 뮤지엄 개론, 현대미술의 이해 등을 강의했다. 현재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뮤지엄 게이트’에서는 조동문이 유학 생활 중 직접 방문했던 뮤지엄 기행문이 담겨 있다.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4.01~30)	전시장소
강민숙(06조소)	강민숙: Soothing Songs from an Alien	05.13 ~ 06.16	송은아트큐브
김기대(06조소)	AQUA UNIVERSE	04.03 ~ 05.22	오픈스페이스 배
김성국(04서양)	The Storyteller	05.06 ~ 06.05	갤러리LVS
김승환(06시디)	Portraits of the ugly	05.07 ~ 05.28	스페이스몸
김정아(90서양)	바다, 그 안의 나, 내 안의 바다	05.24 ~ 05.28	거제시청 로비
김제민(98서양)	식물일기	05.12 ~ 05.18	갤러리도스
노오경(16서양)	For Better Life 배러라이프를 위하여	05.29 ~ 06.12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박덕실(81회화)	박덕실 개인전	05.01 ~ 05.31	필름포럼갤러리
서용(85동양)	천상언어 From the Voice of Heaven to the Bliss of Oasis	05.03 ~ 05.30	윤선갤러리
신경훈(74응미)	신경훈전	05.03 ~ 05.29	킷사텐아틀리에
안규철(73조소)	사물의 뒷모습	05.13 ~ 07.04	국제갤러리 부산
양현모(06서양)	Balance	05.20 ~ 06.13	아트스페이스영
윤가림(99조소)	Tactile Hours	05.20 ~ 06.06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이겨레(06서양)	Crossing	05.14 ~ 06.13	수애노339
이성수(99조소)	The Life of Pinkman 영원 같은 일상	05.13 ~ 05.26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이종송(83동양)	양상블 Ensemble	05.04 ~ 05.27	금오공대갤러리
이혜민(74회화)	이혜민 초대전	05.10 ~ 06.09	일조원갤러리
임의섭(89공예)	여주도자직설4 임의섭 개인전	05.18 ~ 06.27	여주도자문화센터
정상화(53회화)	정상화 개인전	05.22 ~ 09.2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정종미(76회화)	기억공작소	05.12 ~ 07.11	봉산문화회관 4전시실
정주영(88서양)	살과 금 Flesh and Fissure	05.21 ~ 06.18	누크갤러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부연(71응미) 석좌교수가 이향아 부총장과 주관하는 '2021 Invitational Ceramic Exhibition'이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가 주최하고 주한중국문화원 후원으로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중국작가는 경덕진대학교 Chen Jun 박물관장, Long Zhou 교수 주관으로 경덕진대 교수 및 강사들과 유망 작가들이 함께 구성했다. 전시회에는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중국 도예가 30명과 한국 도예가 51명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 발전하는 국제 전시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